

내게 있으면 '하나'지만 나누면 '홍' 됩니다

'나눔'의 현장에서 만나자... 불교계 총출동



새해 불교계의 공동 화두는 '나눔'이다. 신년 벽두부터 각 종단과 단체들이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을 발원하고 나섰다. 내게 있으면 '하나'지만 이웃과 나누면 둘도 되고 셋도 넷도 된다. 가르침이야말로 이 시대 불자들이 가장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인 것이다.

자비의 보험금 나누기...조계종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조계종이 2월부터 대대적으로 펼치는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은 이런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보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종단에 보시해 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스님들의 노후복지 공간 마련과 후원, 불우이웃 지원 사업 등을 벌이는 운동이다. 스님 가입자

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를 보시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신도나 일반인들은 사망보험금 중 10%를 보시해 승가노후복지에 기여한다. 승가는 대중을, 대중은 승가를 돕는 말 그대로 '나눔 운동'인 셈이다. 보험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 지원센터와 재가불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된다.

1사찰 1선행하기...태고종

태고종은 '1사찰 1선행 실천운동'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 소속 2천여 사찰이 1가지 선행을 펼친다면 '이웃과 함께 하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불교와 종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앞으로 태고종 스님들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가정, 재조사, 군법당 등의 분야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선행에

참여해야 총무직 취임이 가능해진다. 태고종은 이 같은 각 사찰과 지역종무원의 복지활동을 종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 사회복지재단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나누며 하나되기...천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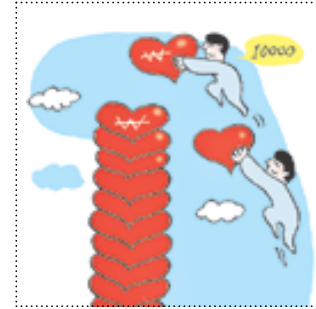
지난해 미야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불교복지의 새 분야를 개척한 천태종은 올해는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과 후원금, 시간, 정성을 함께 나누는 운동을 전개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3:1 릴레이 운동'도 펼친다. 정부의 실업·생계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고, 결식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것이 취지다. 3:1 릴레이는 3명의 후원자가 1명의 아동

을 지원하고, 나아가 또 다른 회원을 연결하는 릴레이 후원 운동이다.

행복 릴레이 동참하기...진각종

송송달이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되듯 불우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회원을 점차 늘려 나가는 운동. 진각종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복 릴레이 만월회(婁月會 또는 滿月會) 캠페인'이다. 진각종도 후원회원 확대를 위해 릴레이 방식을 도입했다. 회원들은 어려운 이들을 후원할 성금 1만원을 매월 적립하고, 뜻을 나눌 또한명의 회원도 추천한다. 이렇게 모집할 인원은 1만명.

모금된 후원금은 진각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납골당 건립, 소외가정 후원 프로그램인 진각복지 119 특화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명우·박봉영 기자



'나눔의 손잡기 운동'

현대불교 2월부터 전개

현대불교신문은 2월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지상 캠페인과 나눔의 방법 안내, 도움 받아야 할 곳 소개는 물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제안 합니다.



"모든 종도 수행 교화에 매진하라" 교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7일 신년하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수행과 화합을 강조한 신년교시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신년교시를 통해 △종도들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여 불조의 해명을 계승 선양하고 중생을 널리 이익케 하라 △종단은 승가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여 인권의 스승으로서 인복과 위의를 갖추도록 하라 △모든 불자들은 지혜와 자비의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라 △승가는 화합이 제일덕목이니 항상 육화(六和)로서 서로 화경(和敬)토록 하라며 종단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2면

법전 스님은 또 "2003년도에는 종단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치하드린다"며 "금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서 종단이 화합하고 나라와 국민 불교단체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자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상(불국사)·지성(동화사)·명설(화엄사)·법타(은혜사) 스님 등 12명의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성관(총무부장)·보정(재무부장)·종열(호법부장)·미산(사회부장)·탁연(문화부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교육부장 정산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세계불교지도사회의

내달 17일 인도서

인도에서 처음으로 세계불교지도자 회의가 열린다. 인도 문화관광부는 비하르 주(州)정부, 마하보디 사찰과 공동으로 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불교지도자 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clave)를 개최한다. 인도,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500

세계 청년불자 300명 '나눔과 하나됨' 다짐

세계불교청년포럼 성료

세계 각국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불교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WFBY) 한국본부의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

럼'을 개최했다. (사진)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몽골, 벨기에, 인도 등 13개국 19개 청년불교단체와 대만불교청년협의회 고문 정아오 스님, <참바지를 입은 부처>의 저자 수미 런던(인터뷰 14면), WBO(Western Buddhist

Order, 서구불교도기구) 대표 달마차리 수바즈라(Dharmachari Suvaraj)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밖에 12세부터 25세까지의 청(少)년 불자들의 모임인 '국제클럽25'가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산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한상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할'




삼재기도... 삼재를 내놓으면 없애 주겠다



그림·조태호

- 송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西翁大宗師 舍利 親見法會

백암산 위 한 사나운 법이
 한방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다 물어 죽인다
 서늘하고 맑은 바람 일으키며 날아 올부꼈으니
 가을 하늘 맑은 달빛은 서릿발처럼 차갑다

白巖山上一猛虎 深夜橫行咬殺人
 颯風清風飛吼吼 秋天皎月冷霜輪

(서옹대종사가 스승 빈암 스님으로부터 받은 전법가)

꺾이지른 듯 험준한 석벽과 빼어난 경관의 산봉우리가 중첩된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으로 이름조차 백암(白巖)이라 불리는 백암산. 스승 빈암스님의 예인대로 일세를 풍미하며 천하 남자의 미망을 깨뜨리고 바른 지견을 연 백암산 호랑이 서옹대종사께서 남기신 수행과 자비의 자취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400년 수행과 기도의 터전, 참사람 결사의 본사, 많은 종사스님들께서 탄생하신 대가람 고불총림 백암사로 발걸음 하시어 스님의 자취를 되새기고 새해의 다짐을 설거하는 소중한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寺

● 사리천견법회: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암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제: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박제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암사 참사람 수행관